

&lt;서평&gt;

##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Ernst-August Gutt,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0)

김범식\*

### 1. 서론

에른스트-아우구스트 구트(Ernst-August Gutt)의 책, *Translation and Relevance* 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1989)을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것으로(1991),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디어더 윌슨(Deirdre Wilson)과 단 스페버(Dan Sperber)가 공동 저술하며 발전시키던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상관관계 이론(relevance theory)을 번역 현상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 이론으로 적용한 획기적인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본 책은 기본적으로 번역의 특정한 이론을 제안하기보다는 번역의 다양한 현상과 견해, 그리고 원칙들을 탐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상관관계 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논문이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번역을 원저자의 상황과 전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지는 2차적 의사소통이라고 보고, 번역은 서로 다른 두 언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적 혹은 해석적 사용(interlingual interpretive use)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트는 번역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관관계의 원칙을 일관적인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2. [1장: 번역 기술 - 비판적 관찰]

1장에서는 번역에 대한 학문적 이론 연구의 발전과 거기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학자들은 1980년대까지도 번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이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요한 이유로 번역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미미해서, 적절한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았

---

\*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신약학

다. 번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건전한 학문적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발전되고 있었고, 이것은 결국 번역이라는 영역의 학문이 다른 학문적 영역들과 함께 해야 함을 보여주는 발전의 역사였다(언어학, 심리학, 인류 문화학, 의사소통학과 연계하는 각 전문 분야 협력의 혹은 여러 분야에 관계가 있는 과학[multidisciplinary or interdisciplinary science]). 이론적 학문으로서 번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발전되기 시작했지만, 이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첫째로, 번역이 다양한 학문의 영역들과 접촉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관되고 통합된 이론 체계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로, 번역 자체가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고 있어서 번역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영역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번역의 과정은 번역 이론과 상관없이 때로는 비이론적 접근으로서 번역자의 번역어 결정의 과정과 그것의 가치 평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학문(science)이라기보다, 번역의 기술(exact art)에 관련되어서, 정확성(precision), 그리고 원어에 대한 번역의 동등성(equivalence)을 요구하는 기능이라는 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번역의 동등성을 다루는 이론 모델들(예를 들어, 줄리안 하우스[Juliane House]의 기능 동등성 모델(functional equivalence model)<sup>1)</sup>도 상대적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번역의 이론으로 “일치함”을 전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저자는 또한 번역의 가치평가(evaluation)를 “목적”(purpose)에 대한 부합성에 근거하는 레이브(Reiß)와 베르메르(Vermeer)의 이론 모델도<sup>2)</sup>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복잡한 이슈들을 야기한다고 본다.

저자는 번역의 학문적 이론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기능주의 접근(functionalist approach)의 서술적 분류형 접근(descriptive-classificatory approach)을 비판한다. 이 이론은 많은 현상들을 유형들(classes)로 분류하는 유형 체계들(classification schemes)의 계발에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을 통해 일반화(generalization)를 하는 데 문제가 있고, 다양한 현상에 따라 유형 체계가 장황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번역의 영역이 무엇이나에 따른 결정의 문제는 이것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번역과 관련된 여러 현상을 카테고리화 하여 분류하는 이 방법론은 번역에 대한 다른 어떤 원칙도 제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상을 고유한 속성에 근거하여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현상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현상은 인간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 Juliane House,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übingen: Gunter Narr, 1981).

2) Katharina Reiß and Hans J. Vermeer,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Übersetzungstheorie* (Tübingen: Niemeyer, 1984).

저자는 위의 학문적 연구들의 문제들로부터 번역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일반적 이론을 제시하는데, 바로 의사소통(communication) 이론으로서 상관관계 이론이다. 이것은 행위(behavior)보다는 언어능력(competence)의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보는 것으로 정신(mind)의 정보 인지기능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은 단순한 서술 유형 분류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와 관련된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복잡한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 3. [2장: 상관관계 이론]

2장에서 구트는 자신의 번역 이론의 토대가 되는 상관관계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sup>3)</sup>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중요한 정신능력은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목적에서 본다면, 언어 혹은 행위를 통해서 자극(stimulus)을 받음으로써 청중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 전달된 정보를 이해하게 된다. 가장 명확한 의사전달은 물론 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의미의 표현(semantic representations)이다.<sup>4)</sup> 곧 이것은 정신의 언어 표현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 표현은 단지 “전제 개요”(assumption schemas) 혹은 “명제를 위한 청사진”에 불과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다. 상관관계 이론은 비록 한 언어적 표현이 무엇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 다르다고 본다. 어의적 표현으로부터 문맥/상황(context)을 통하여 명제적 형식으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상관관계 이론에서 문맥이라는 것은 청자가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전제들(assumptions)의 부분으로서 심리적 구성체(psychological construct)이며 인지적 환경(cognitive environment)이다. 즉 이것은 다양한 정보의 복합물인데, 물리적 환경, 혹은 기억이나 전후 대화 가운데서 혹은 문화적 지식에서 축적된 정보로부터 해석되어서 언제든지 잠재적 대화의 문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대화 당사자 간의 인지적 환경으로부터 화자가 의도하는 바로 그 전제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context selection). 이 문맥의 선택은 결국 기억이라는 구조가 가능한 한 적은 노력(processing effort)을 통해 청자들이 가장 접근 가능한 문맥의 전제들로부터 효과

3) 저자는 상관관계 이론을 다음의 책에서 주로 소개하고 있다; Dan Sperber and Deirdre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1986).

4) “의미의 표현”이라는 개념은 언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정신의 요소로서 언어의 형식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에게 언어적 속성에 따라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혹은 “나타내는” 정신적 형식을 부가하는 언어 체계이다.

적으로 제한하여 선택한다는 일반적 원칙(*consistence with principle of relevance*)을 전제한다. 또한 상관관계 이론은 인간은 기억 속에 저장된 주위 세계에 대한 전제들을 의사소통에서는 수정하여 될 수 있으면 이해와 효과를 높이려 한다고 전제한다(*contextual effects or modifications*).<sup>5)</sup>

저자는 상관관계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간의 인지능력은 상관관계를 최대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청자는 불필요한 노력 없이 화자의 문맥의 효과를 충분히 그리고 최소한으로 추론한다고 전제한다. 적절한 경우에 맞는 화자의 문맥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청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로부터 선택하여 최상의 상관관계(*optimal relevance*)를 찾아낸다. 의사소통의 상관관계 이론의 원칙상, 의사소통이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화자에게 말의 문맥을 분명히 할(청자가 쉽게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이 있다. 저자는 또한 상관관계 이론에서 “*loose talk*”를 설명할 때, “추론적/해석적 유사성”(interpretive resemblance)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즉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과 의미를 의사소통에서는 말로서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화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것은 상관없이 보이는 명제의 문장들(생각이 표현되는 양식)이 어떤 주어진 문맥에서는 의사소통(상관관계)에서의 해석적 작업)에 의미를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해석적으로 사용되는데’(interpretive use) 것이다. 의미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로서 느슨하게 표현(*loose talk*)하지만, 문장의 분석적이고 문맥적인 함축으로부터, 말의 표현은 의도된 뜻으로 해석적으로 닮고자 한다(*interpretively resemble*). 그래서 상관관계 이론은 화자는 결국 자신의 표현이 자신의 생각을 충실하게 청자에게 추론되어 전달될 것이라는 원칙을 이론의 근거로 삼는다(*a notion of faithfulness*). 그러나 발화(*utterances*)에 있어서는, 같은 명제들이 해석적으로 닮고자 하는 일(*resemblance between propositional forms*)도, 서로 다른 문맥에서는 다른 의미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맥이 전제될 때에만 적용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해석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은 대화가 어떤 명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문맥에 좌우된다고 말한다.

#### 4. [3장: 포괄적 번역]

3장에서 구트는 번역 이론으로서 번역서가 원문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의도된 관점을 소개하면서, 하우스(J. House)의 “포괄적 번역”(covert translation) 개념을

5) 문맥적인 효과 혹은 수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contextual implication, the strengthening of assumption already held, and the elimination of assumptions.

예로 들고 있다. 이 번역은 번역서의 지위보다는 번역어의 문화(target culture)에서 원천 본문(source text) 같은 기능을 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즉 번역어 사용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번역은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t approach)의 이상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만일 다른 문화권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중에게 기능적으로만 일치만 시키는 번역의 형태에서는 원문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한 문장의 기능을 번역이 보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기능적으로 일치했다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번역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번역과 원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호닉(Hönig)과 쿠브말(Kußmaul)<sup>6)</sup>은 번역에 있어서 지속적인 요소들로서 텍스트 기능들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들을 오히려 변수로 보는 번역 이론을 제안하였다. 즉 번역의 내용과 기능은 번역자의 의도에 좌우되지 않고, 때로는 그것들은 원문에 좌우되거나, 때로는 의사소통의 목적에 좌우된다고 애매하게 설명하였다.

저자는 두 언어들(원어와 번역어)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원문에 의존하는 해석적 번역법과 단지 원문과의 기능적 관계만을 중시하는 서술적 번역법(descriptive use)을 구별하는데, 이 구별은 상관관계 이론에 있어서 인간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후자는 원문의 의미보다는 번역어 대상 청중(target audience)과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번역 텍스트의 기능적 의미만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번역의 극단적인 예로서, 기구를 만드는 설명서(manual) 번역을 들 수 있는데, 원문과 상관없이 소비자들(기구를 조립할 수 있는 기능과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구트는 다른 언어 간의 서술적(descriptive)인 의사소통은 원어의 화자가 의도된 의사소통의 자극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기술을 가진 통역자 혹은 번역자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원어 화자의 책임은 가능한 한, 청중들에게 명확한 자극으로 전달되도록 일련의 전제들이 가장 상관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어의 전달자는 수용 언어 청중(receptor language audience)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이중 언어 사용자가 필요하다. 오늘의 언어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의 이론과 실재를 통해서 볼 때, 번역은 이제 단순히 원어 텍스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번역의 목적과 대상 청중과 문화에 어필하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6) Hans G. Hönig and Paul Kußmaul, *Strategie der Übersetzung*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84).

## 5. [4장: 원문의 의미에 대한 번역]

4장에서 저자는 1960년대 이래로 번역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번역 대상 청중에게 번역이 얼마나 의사소통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특별히 주목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번역에 있어서 원문의 형태(form)보다는 원문의 의미 지향적인 이론들(meaning-oriented approaches)을 이 장에서 소개하며 그 문제점들도 함께 지적한다. 나이다(Nida)에 의해 발전된 “역동적/기능 동등성”(dynamic/functional equivalence)에 관한 이론은, 과거에는 번역에 있어서 메시지의 형태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메시지에 대한 번역 수용자(receptor)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7)</sup> 즉 번역 수용자의 반응이 원어와 그 청중의 반응과 같은 정도의 동등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중의 반응은 평균 수준의 청중이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이해 수준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표현, 그리고 행동으로의 실천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적 동등성의 이론과 비슷하지만, 비크만(Beekman)과 캘로우(Callow)는 원어의 역동성에 충실하면서도, 수용자의 반응보다는 언어 사용의 “자연스러움”(naturalness)과 쉬운 이해도를 강조하는 “관용적 번역 이론”(idiomatic translation)을 성서번역에서 주장한다.<sup>8)</sup> 상관관계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번역 이론들이 제시하는 것은 번역이라는 것은 원문의 문자적 의미 혹은 원문의 메시지를 번역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번역은 적어도 표면적 의미(surface meaning)를 대다수의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상관관계의 이론에서 보듯이, 인간의 의사소통은 추론(inference)에 의해 바른 문맥의 전제(contextual assumption)를 선택함으로써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primary communication situations), 화자의 전제를 잘못 이해하는 일도 일어난다(secondary communication situations). 구트는 후자의 경우, 즉 2차적 의사소통의 상황들에서, “역동적 동등성”의 이론에서 원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문화적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자구적 번역(linguistic translation)의 강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원문의 메시지를

7) Eugene A. Nida and Charles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이 이론에서 원문의 메시지라는 것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해하고 인지해 주기를 원하는 개념들과 감정들을 포함하는 담화의 내용 혹은 전체적인 의미(meaning)를 말한다.

8) John Beekman and John Callow,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74). 밀드레드 랄슨(Mildred L. Larson)은 이 관용적 번역 이론을 일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청중의 반응도 “역동성”의 측면으로 고려한다. 참조,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잘 이해하고자 하는 역동적 동등성의 이론은 번역 수용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이 매끄러운 면이 있지만, 문맥의 상황에 따른 변용 — 특별히 수사적 표현에 있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적 대체가 일어난다 — 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그 변용은 언어의 번역 이론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또한 2차적 의사소통의 상황들에서 관용적 번역 이론도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관용적 번역 이론은 — 아마도 저자는 간접적 번역(*indirect translation*)을 염두에 둔 듯하다 —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단순한 자구적 번역보다는 숨겨진 의미(*implicature*)를 보다 명시적인 정보(*explicature*)로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원칙의 근거에는 텍스트는 문법적이고 어휘적인 언어의 표층 구조(*surface structure*)와 명제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심층 구조(*deep structure*)를 가지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바로 심층 구조의 의미를 번역하는 것으로 원문의 제시된 정보와 숨겨진 정보를 둘 다 드러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이론의 문제로, 두 구조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문법적 상황과 텍스트의 정보가 숨겨진 전제로 의도되었을 때의 번역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관용적 번역 이론이 “언어”를 “*form-meaning correlate*”로 보고, 텍스트의 의미가 형태가 없는 숨겨진 정보를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이다.<sup>9)</sup>

저자는 내포된 의미를 찾아내는 상관관계 이론의 원칙(*principle of relevance: 문맥의 전제들로부터 청중은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적절한 문맥을 찾아내는 최상의 노력을 하게 된다*)은 숨겨진 의미들의 미결정(*indeterminacy*)도 인간의 의사소통의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관용적 번역 이론의 문제는 내포된 미결정의 의미를 명료화(*explication*)함으로 의사소통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번역의 결과물은 청중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힘들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역동적 동등성”의 이론은 단순히 원문의 기능성을 자구 번역의 자연스러움과 쉬움으로 번역함으로 역사적 문화적 차이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번역자의 적절한 문맥적 효과의 부족은 번역 수용자들의 개인적 삶과 번역문과의 개인적인 상관관계 정도를 약화시킬 것이다.<sup>10)</sup> 역동적 동등성의 이론과 관용적 이론은 원문 메시지와 동일한 번역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근접성”에만 만족한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의미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는 그들이 정한 번역의 목적을 1차적 혹은 2차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결코 이를 수가 없다. 저자는 이러한 번역 이론들의 근거에는 의사소통의 이론의 해석적 용법(*interpretive use*)이 있다고 본다. 즉 번역이라는 것은 원문이 의도하는 모든

9) 라르손(Larson)은 숨겨진 정보와 부재의 정보(*absent information*)를 구별하고, 후자를 번역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10) 웨인 디에(Wayne T. Dye)는 이것을 “*principle of personal relevance*”라고 칭하였다. 참조, *The Bible Translation Strategy* (Dallas: Wycliffe Bible Translators, 1980).

명료적 정보들과 내재적 의미들을 옮겨야 된다고 보는 이론들이다. 그러나 번역자의 임의의 선택과 추가, 혹은 삭제, 재구성을 통한 번역은 의미의 상충과 왜곡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번역 수용자들의 인지적 환경과 상관없이 단지 원문의 메시지를 옮기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대안적인 것으로, 상관관계의 의사소통 이론에서 말하는 번역 이론은 번역 수용자들이 “상관관계의 원리와의 상응”(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elevance)을 발견해 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번역의 자극이 항상 상관관계로부터 결정되고(relevance-determined), 문맥에 의존해야 한다는(context-dependent) 것이다.

## 6. [5장: 두 언어 사이에서의 해석적 번역]

5장에서 저자는 원문과 똑같은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번역 방법이 번역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지시키면서, 번역이 원문을 해석적으로 닮기(interpretively resemble)를 원했을 때, 상관관계 의사소통 이론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한다.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청중이 어떤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상관관계의 원칙은 그 청중과 관련된 상관성에 따라 적절한 문맥효과를 고려하고 대답하거나, 청중에게 불필요한 추론 노력을 피하며 대답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 번역은 항상 문맥 의존적이면서,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context-determined). 저자는 두 언어 사이의 해석적 용법(interlingual interpretive use)에 있어서, 원문을 충실하게 닮으려는 노력 가운데, 단순히 문법적인 성, 수의 일치로부터 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오는 차이를 무시함으로 오히려 상관관계의 원칙에 어긋나서 오히려 번역수용자들에게 문맥의 효과를 이해하려는 더 많은 노력(processing cost)과 혼란을 가져오게 한다고 한다. 원문을 해석적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원문의 모든 특성을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론적 기능의 차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레비(Lévy)는 이 선택을 할 때에 기능적 단계 분류(functional hierarchy)를 따라서 선택하도록 제안하였다.<sup>11)</sup> 그러나 저자는 이 기능적 단계 분류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근거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구트는 이러한 기능적 단계 분류의 원칙에 따른 선택의 근거보다는 상관관계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상관관계의 측면들에 근거하여 원문을 충실히 닮고자 하는 번역은 비록 원문의 모습들을 적게 닮았을 지라도, 추론의 시간(processing effort)을 증가시키지 않음으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번역어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11) Jiri Levy,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Frankfurt: Athenäum, 1969).

자신의 청중에게 관계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직관과 신념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번역 수용자의 인지적 환경에 대한 번역자의 전체가 잘못되어 의사소통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상관관계 이론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번역 이론의 규칙과 원칙은 일반적인 번역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상관관계의 문제라고 결론 내린다.

다음으로 저자는 여러 이론들에서 근거하고 있는 번역 지침들을 상관관계 이론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비크만과 캘로우가 번역에 있어서 번역 수용자들에게 사물과 사건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어휘적인 동등성”(lexical equivalence)의 원칙을 제안하면서, 세 가지 주요한 선택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1) 일반적인 말을 변형시킨 동등성, 2) 외래어의 차용을 통한 동등성, 3) 문화적 대안을 통한 동등성. 저자는 이러한 원칙들도 결국 상관관계의 원칙의 직접적인 적용이라고 부르면서, 첫 번째의 선택 사항도 결국 문맥에 가장 의미 있는(significant) 요소를 선택하는 상관관계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의 선택 사항은 역사적 문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성서에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용어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기독교인 청중들에게 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들의 뒤에는 결국 청중의 관심 영역에 따른 상관관계 이론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원칙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빈도수에 상응하는 원칙”에서, 원어와 번역어가 서로 비슷한 빈도수의 일반적 용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상관관계의 이론상, 우리의 기억력은 단어의 빈도수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관계의 원칙에 상응하는 단어를 택하지 않으면, 빈도수가 다른 단어의 선택은 “부자연스러움”(unnaturalness)으로 귀결된다. 또한 상관관계 원칙에 상응하는 번역의 원칙은 “동시통역”(simultaneous interpretation)에서도 적용되는데, 통역자는 화자의 원어를 청중에게 원어의 관련된 측면을 전달해야지, 원어를 그대로 닳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 특별한 상황에서는 번역의 원칙이나 규정은 수정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종교적 상징어를 그대로 불변의 용어로 보존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저자는 대부분의 번역 이론의 원칙들이나 지침들 혹은 이들 원칙들의 상충, 혹은 예외들도, 똑같이 상관관계 원칙에 상응하려는(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elevance) 의사소통의 본질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번역 이론에 있어서 원문에 충실하려고 하는 해석적 방법은, 텍스트 지향적이고, 동시에 문맥 지향적이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히 번역은 최상의 상관관계를 찾아내어 번역하는 것과 구문 재서술(paraphrase)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 7. [6장: 표현된 것을 번역하는 일]

6장에서 구트는 언어의 번역에 있어서 원 문체의 스타일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딜레마를 상관관계의 이론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 특별히 인용문에 대한 번역은 번역의 문체에 대한 문제를 재고하게 한다.

저자는 특별히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을 번역하는 스타일에 주목하면서, 전자는 언어적인 속성들을 닮으려는 데 반해서, 후자는 인지적인 효과에 의존한다고 말한다. 텍스트와 발화(utterances)를 의미론적으로 비슷하게 옮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스타일의 속성들을 닮게는 할 수 없다. 특별히 말 하나 하나를 옮기는 보고(verbatim reporting)는 번역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타일의 속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것들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청중을 화자가 의도하는 번역으로 인도하는 지침(clues)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사소통의 단서”라고 부른다. 직접화법을 번역할 때에 필요한 것은 원문 안에 있는 모든 의사소통의 단서들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할 때에 화자의 의도된 정보뿐만 아니라, 스타일의 속성들을 보존하게 된다. 구트는 “의사소통의 단서들”(communicative clues)이 의미하는 현상들과 그것이 어떤 점에서 원문 스타일을 보존할 수 있는 직접 번역법(direct translation)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첫째로, 의사소통의 단서는 의미론적인 표현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것의 유용성은 화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전제들의 한 근거로서 의사소통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의미론적인 표현으로부터 의사소통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의 해석으로부터 발견한다. 비록 의미론적 표현으로부터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단서를 발견해 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어의 문맥적인 전제를 잘못 표현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자의 의사소통의 자극(stimulus)과 청자의 인지적 환경(cognitive environment)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뿐이다. 상관관계 이론은 번역에 있어서 인지적 환경의 중요성과 “의미”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 이론에서 정신의 개념들은 세 가지 정보와 연관을 맺고 있다: 논리적 정보(logical entry), 사전적 정보(encyclopedic entry), 어휘적 정보(lexical entry). 상관관계 이론은 의미론적 개념들은 이미 연역적 규칙에 따라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신에서 논리적 정보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고한다고 본다. 논리적 정보가 본질적 개념이라면, 사전적 정보는 우발적 개념이다. 따라서 후자는 연역적 규칙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의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정보에 열려 있는 상태다. 이 두 가지 정보들은 발화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논리적 정보는 의사소통의 전제가 되고, 사전적 정보는 문맥을 결정한다. 의미론적 표현의 속성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정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의미론적 표현의 유사성을 추구하는 번역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일 의사소통의 정보가 사전적인 정보, 즉 문맥에 따른 것이라면, 의사소통의 단서는 논리적 정보 밖에 있다.<sup>12)</sup>

둘째로, 저자는 문장론적(syntactic)인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의사소통의 단서를 상관관계 이론에서 설명한다. 이것은 번역에 있어서 원문의 단어 순서나 문장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문장의 특징들을 변화시킴으로 의도된 해석의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번역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 성서 그리스어에서 보이는 형용사의 명사 다음의 후치 형태를 학자들의 의견과 달리, 터너(Turner)는 이 용법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3)</sup> 저자는 그의 의견을 상관관계 이론으로 설명한다. 상관관계 원칙은 의사소통의 자극에 반응하는 추론 노력과 그것과 부합하여 기대되는 문맥적 효과 사이의 대가-이익 상관관계를 설정한다. 화자가 만일 반복(repetition)이라는 자극을 주어, 추론의 과정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문맥적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자극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거나, 평범한 구조의 반복이라면, 추론의 과정(processing effort)이나 문맥의 효과는 결코 증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터너의 주장대로, 누가복음에서 형용사의 후치 형태는 특별한 강조점이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각 행의 평행구조는 마지막 절의 “좋은 땅”의 형용사를 후치시킴으로 문장 구조로부터 오는 의사소통의 단서를 제공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셋째로, 구트는 음성학적인 속성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단서들을 보여준다. 이 음성적인 것을 표현하는 의성어나 필적은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고 철자화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번역과 필사(transcription)의 관계에서, 후자는 전자의 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번역과 필사는 분명히 구분된다. 모든 음성을 음성학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필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번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단어의 의미론적인 것을 번역하지만, 필사는 개념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고유명사의 번역을 필사하기보다는 의미가 있다면 의미론적으로 바꾸어 관계성을 내포한 이름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자는 가능한 의사소통의 모든 단서들로부터 무엇을 보존하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12) 저자는 논리적 정보와 사전적 정보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것은 경험적 측면에 속한 것이라 인정한다.

13) Nigel Turner, “Style”, James H. Moulton, ed.,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vol. 4 (Edinburgh: Clark, 1976).

넷째로, 의사소통의 단서는 상관 관계성에 의미론적인 제한을 두게 하는 “실제적 접속사”(pragmatic connectives)의 역할이다. 상관관계의 원칙은 접속사를 통하여 앞의 문맥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문맥의 전제와 정보로부터 청중은 예측하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상관관계 이론은 때로 정의하기 어려운 접속사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게 되고,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공헌한다.

다섯째로, 저자는 정형적인 표현(formulaic expressions)으로부터 의사소통의 단서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단어가 개념적 형태 단어(logical entries)나 의미론적인 표현(semantic representation) 아닌 형식 문구일 때, 이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정보(encyclopedic information)에 따라 비슷한 종류의 정형적인 표현으로 번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sup>14)</sup> 비록 정형적인 표현이 의미론적인 표현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역사를 통하여 점점 더 우리의 해석적 과정(processing effort)을 생략시키는 정형적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다. 만일 정형적인 수사 표현들(tropes)이 반복되어 계속 사용된다면, 그 표현은 우리의 기억에 저장되어, 추론 과정을 통하여 그 표현들이 생각되기보다는, 저장된 기억의 전제들로부터 나오게 되어 전혀 문맥적인 효과(contextual effects)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문맥적인 효과라는 것은 발화(utterance)와 문맥의 조합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반복적인 수사 표현의 사용은 결국 문맥의 효과를 상실케 되어, 상관관계의 원리상, 드디어는 그 표현의 발언이 상관성을 잃게 됨으로 죽은 은유적 표현이 될 것이다. 격언, 금지명령 등의 정형적 표현들은 일종의 정신의 어휘적 단위 체계로서 기억에 저장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단순한 의미론적 번역보다는 사전적 정보에 따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번역해야 한다.

여섯째로, 구트는 의성어의 번역에 대하여 논한다. 의성어의 종류는 소리를 당지 흉내 내어 표현하는 문자가 있는데, 이것의 번역은 단지 필사(transcription)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물 혹은 자연물의 소리로서 개념적인 가치를 가지거나 언어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 번역이 가능한 의성어가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어떤 보통의 의미론적인 단어는 아니다. 저자는 비록 의성어일지라도 레비의 주장처럼 개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것의 정신적 개념적 표현으로서의 단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의성어에 대한 번역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것의 사용도 사전적인 정보에 따라, 의사소통의 단서가 되어, 비슷한 종류의 의성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일곱째로, 단어들의 스타일에 관련된 가치가 있어서, 이것도 의사소통의 단서

14) 영어의 “hello”라는 비공식적 인사나 혹은 “Yours sincerely”가 편지형식의 끝에 붙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 된다. 이것은 내포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어서, 사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의미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비록 같은 동의어라 할지라도, 각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내포적인 의미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스타일적인 현상의 범위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음운에 근거를 두는 시적 속성으로부터 의사소통의 단서를 말한다. 시들 가운데 보이는 운율, 리듬 등을 따라서 번역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적어도 분명히 문장의 구조로부터 독립되어 발생됨으로 문장 구성에 구조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상관관계 이론에 따르면, 시적인 효과는 청중이 내연적 의미들로부터 발생하는, “인상”(impression)을 받도록 유도되고, 그러한 의미들을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산문에 대한 해석은 주로 문장의 관계와 기능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시적인 효과는 비교적 어렵듯한 해석의 고리를 탐색하는 것이다. 음운과 리듬은 문장의 구조로부터 독립되어, 부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의 자유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시적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 번역법은 시의 내재적인 의미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화자가 제공하는 문맥의 정보나 단서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위의 다양한 스타일의 요소들을 보존하려는 직접 번역법의 가능성들을 다루었다. 그러는 가운데, 상관관계 이론은 이들의 많은 속성들과 측면들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의사소통의 단서들을 가지고 직접적인 번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저자는 좀 더 통일된 직접 번역과 간접 번역의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 8. 8장 [7장: 통합된 번역 이론]

마지막 장은 앞의 두 장에서 언급된 언어들 사이에서의 추론적/해석적 용법(interpretive use- 내재적 그리고 명시적 의미를 화자와 청자가 공유)의 번역 개념과 직접 번역법(direct translation - 의사소통의 단서를 공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번역의 종합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 번역은 주로 직접화법에서의 문장과 어휘적 형태의 형태를 닮는 것으로서 해석적 용법의 번역을 자동적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직접 번역도 의사소통의 자극들과 문맥과 번역 사이의 인과적 상호의존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해석적 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자극들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표현된다면 결국 상관관계의 추

론과정을 통하여 같은 해석으로 귀결되게 된다. 그러나 대개 직접화법의 직접 번역은 비록 원문의 실제적 언어적 속성보다는 원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문법적 특성만 옮기는 목적으로 인용하게 된다. 이것은 의사소통의 단서만을 가지고 번역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직접화법이 공유된 언어의 속성을 가진 채, 같은 뜻으로 번역되기 위해서는 같은 문맥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직접 번역법은 상관관계 이론에 잘 맞고 있는 해석적 번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직접 번역법도 상관관계 이론적 골격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상관관계 이론은 직접 번역법과 간접 번역법을 언어 사이의 해석적 용법의 경우로서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번역 이론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직접화법은 언어적 속성만을 공유하지만, 직접 번역법이라는 것은 해석적 유사성(번역자의 원문 해석에 근거한)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해석적 용법(interpretive use)에 들어간다고 본다. 직접 번역법이 원문의 의도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원 화자가 설정하는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 번역법에 있어서도, 원문의 원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원문의 의도된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어서, 결국 상관관계의 추론의 원칙과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시 한 번 원문의 원래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번역에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내포된 의미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오도된 영향을 청중들에게 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피해야 한다.

저자는 또한 직접 번역법도 간접 번역법(원어적 속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내재적 의미를 부연 설명하려는 시도)도 아닌 경우이지만, 원어와 유사한 문장 구조나 언어적 속성을 적어도 닮으려는 번역법(non-interpretive use)도 원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임을 제안하면서, 이것 역시 상관관계 이론의 원칙에 상응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구트는 번역의 실패와 관련된 많은 요소들을 살펴보며, 상관관계 이론이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캐더린 바른웰(Katharine Barnwell)이 지적하는 대로, 번역의 수용성(acceptability)에 많은 실질적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번역의 정확성이 형태(form)나 아니면 의미(meaning)에 있느냐에 논란이 있고, 둘째는 사람들이 특정한 번역에 정서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람들이 언어 사이의 차이점에 근거한 번역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넷째는 실질적으로 원문의 의미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너무 자유스러운 번역이 있다는 것이다.<sup>15)</sup> 저자는 이 가운데서 특별히 세 번째 문제에 주목하면서, 번역자와 번역 수용자 사이에서 번역의 기대에 대한 불일치(mismatch)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언어만을 알고

15) Katharine Barnwell, "Towards Acceptable Translations", *Notes on Translation* 95 (1983), 19-25.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번역 결과물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잠재적인 오류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발견하게 된다. 번역자들은 원문들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으로부터 번역을 시도하기 때문에, 원문의 수정, 첨가, 혹은 삭제가 일어나고, 번역자가 직접 번역 혹은 간접 번역을 하게 되지만, 번역 수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원문의 어떤 것을 닮기를 원하는 기대치로부터는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상관관계 이론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청중으로 하여금 해석적 번역이 의도하는 원문과의 유사성 범위를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발화자로서 번역자가 가진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번역자는 자신의 의도하는 정보를 분명히 하고, 그 정보가 상관관계 이론의 추론 원칙과 상응하여야 한다. 번역자는 지향된 번역 수용자의 인지적 환경을 이해하고 어떤 번역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번역자는 청중이 원문과 어느 정도 닮기를 원하는 지에 대한 기대를 알고 이를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의 번역 원칙들을 서문에서 밝힌다면 더 성공적인 번역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된 것은 청중의 기대치를 토의와 세미나를 통해 바꾸는 방법이다. 결국 번역자의 의도와 청중의 기대치를 맞추는 일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또한 번역의 실제에 있어서 번역자가 택한 방법이 항상 번역의 의도를 일관되게 성취하지는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토로한다.

구트는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주지시키는데, 먼저는 직접 번역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완전한 해석적 유사성을 성취하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하면서 번역하고 있다는 화자의 의도를 번역 수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로 번역자는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시키고, 그 차이를 교정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여 의사소통의 실패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번역이 반드시 완전히 해석적 유사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명심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상관관계의 원칙에 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난 저자는 상관관계의 원칙에 부응하고 있는 청중의 해석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사소통 발신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의사소통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강조한다.

결론에서 구트는 번역 현상과 관련된 원칙, 규칙, 그리고 지침들이 상관관계의 원칙의 적용이라고 보고, 문맥과 의사소통의 자극들, 그리고 해석의 상호작용은 이 원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저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론상 번역의 문제는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축소시키는 관점의 결과이다. 저자는 결국 번역의 문제점들은 상관관계의 관점에서 문맥 지향적인 고려들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저자는 번역의 방법으로서 직접적인 번역 혹은 간접적인 번역을 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서 이탈하였을 때에 인지적 환경에서의 불일치가 일어나서 의사소통이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 9. 평가

구트의 번역에 대한 상관관계 이론의 적용과 설명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현상이 인간 정신의 과정과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번역의 행위도 결국 의사소통의 한 단면이고, 이것은 2차적 의사소통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번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만 번역이 의사소통적으로 성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론들의 조건과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그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의사소통으로서의 상관관계의 원칙에 상응하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모든 번역법의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사소통 이론으로서의 번역 개념은 기능주의적 접근으로의 번역보다는 의미 전달로서의 번역을 우선시하고 있다.

구트는 번역 현상과 그 이론들을 의사소통의 효율성(maximize relevance by way of minimizing justifiable processing effort)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일방적인 원칙으로 평가를 내림으로 많은 오해들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구트는 원문의 해석자로서의 번역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번역의 기본 개념으로서, 언어 사이의 해석적 방법(interlingual interpretive use of language)이라고 정의를 내린다.<sup>16)</sup>

구트가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번역자가 원문에 대한 번역의 해석적 유사성 정도(desired level of interpretive resemblance)에 따라 거기에 맞는 번역법(직접적 번역 혹은 간접적 번역)과 의사소통 과정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문의 문맥을 강조해야 한다면 직접적 번역을 택해야 하고, 반대로 번역 수용자들과 그들과 관련된 상황만을 고려하려 한다면 간접적 번역 방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번역자의 존재는 원문의 의미에 대한 해석자

16) Kevin Smith, "Translation as Secondary Communication: The Relevance Theory Perspective of Ernst-August Gutt", J. A. Naude and C. H. J.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Acta Theologia 2002, Supplementum 2 (Bloemfontein: UFS, 2002), 108.

(interpreter)인 동시에 의사소통의 화자(communicator)라는 사실을 구트는 강조하고 있다. 번역작업이 해석과 의사소통에 근거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은 번역을 의사소통학적인 학문의 관점으로 조명한 것에서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번역에 대한 통합적 설명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구트의 목적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번역 이론들을 단순한 의사소통의 상관관계 이론만으로 평가를 내리고 취사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저자가 수긍하는 것처럼, 장점만을 지닌 최고의 번역법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번역자가 선택한 번역의 방법과 이론에 일관성을 보여주며 번역을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번역의 가치임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주요어>(Keyword)

상관관계 이론, 해석적 사용, 상관관계 원칙, 직접적 번역, 해석적 닮기  
relevance theory, interpretive use, the principle of relevance, direct translation,  
interpretive resemblance

<References>

- Barnwell, Katharine, "Towards Acceptable Translations", *Notes on Translation* 95, 1983.
- Beekman, John and Callow, John,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74.
- Hönig, Hans G., and Kußmaul, Paul, *Strategie der Übersetzung*,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1984.
- House, Juliane,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Tübingen: Gunter Narr, 1981.
- Larson, Mildred L., *A Guide to Cross-Language Equivalence*,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 Levy, Jiri,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Frankfurt: Athenäum, 1969.
-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 Reiss, Katharina and Vermeer, Hans J.,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Übersetzungstheorie*, Tübingen: Niemeyer, 1984.
- Smith, Kevin, "Translation as Secondary Communication: The Relevance Theory Perspective of Ernst-August Gutt", J. A. Naude and C. H. J.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Acta Theologia* 2002, *Supplementum* 2 (Bloemfontein: UFS, 2002), 108.
- Sperber, Dan and Wilson, Deirdre,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1986.
- T. Dye, Wayne, *The Bible Translation Strategy*, Dallas: Wycliffe Bible Translators, 1980.
- Turner, Nigel, "Style", James H. Moulton, ed.,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vol. 4, Edinburgh: Clark, 1976.

<Abstract>

**Book Review -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Ernst-August Gutt,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00)

Dr. Bum-Sik Kim

(Seoul Women's University)

Ernst-August Gutt wrote this dissertation to provide a unified account for a complex phenomenon of translation in terms of communication theory. As his relevance-theoretical framework, he used relevance theory developed by Sperber and Wilson (1986). He argues that translation should be accounted for in the cognitive approach to communication. His overarching principle for translation as a successful communication is that there should be always an expectation of optimal relevance, defined as adequate contextual effects at minimal and justifiable processing effort. Basically, Gutt considers translation as a secondary form of communication based on assumptions between translator and receptor in communication, rather than on knowledge.

Gutt contends that translation is an interlingual interpretive use of language by which translato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conveying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to the target audience. By way of interpreting the source text, translator should yield adequate contextual effects at minimal process cost. Every translation, whatever method translator chooses to use,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elevance. Without offering any preferred translation, he suggests that translators should determine the expected level of interpretive resemblance in translation, thereby determining the conditions for communicative success. What matters is not to choose direct translation or indirect translation, but to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elevance so that the implied communication between translator and receptors can be effectively communicative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original.

Gutt's ground-breaking relevance-theoretic analysis of translation made a contribution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ranslation in terms of cognitive psychology.